익숙했던 어제와 오늘을
푸른 빛깔로 물들이며
더 나은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그려갑니다.

SëAH

AHOTH 저

2018 JUL / AUG

Vol. 376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2018 JUL / AUG

배움 + 개선 = 변화

COVER STORY

오래된 공장 벽면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던 곳의 풍경이 새로워 보입니다.
이번 호 세아가족 표지는 세아베스틸 군산 대형단조 공장에서 촬영하였습니다.
공장 외벽의 그림은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카메아 하다르(Kamea Hadar)의 작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를 등에 태운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 내린 바다 위에서 바닷속을 들여다봅니다.
수면 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
익숙한 현재를 새로운 빛깔로 물들이는 것.
무더위를 몰아내는 시원한 한 줄기 바람처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여름입니다.

SECTION 1
희망 더하기

04 - 07 **테마 인터뷰**
조병학 작가

08 - 11 **테마 토크**
인재 개발 부서 담당자들의 만남

12 - 15 **테마 스토리**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 변화

16 - 21 **세아 포커스**
세아 철강공학교실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 2018 학술포럼

22 - 25 **세아 뮤지엄**
XO카드 작전

26 - 29 **글로벌 리포트**
INOX TECH

SECTION 2
마음 나누기

30 - 33 **팀플레이**
세아엔지니어링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 TF팀

34 - 37 **철의 장인**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생산팀 황영기 계장

38 - 41 **세아 로드**
경북 포항

42 - 45 **원데이 클래스**
유기견 산책 봉사

46 - 47 **헬스케어**
서킷 트레이닝

48 - 49 **세아 뉴스**

50 - 51 **사우동정 / 독자엽서**

발행일 2018년 8월 16일(통권 376호)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 733 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 464 6161 **사진** B.A.M Studio 02 548 1026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내일을 바꿉니다

조병학 작가

알아야 할 지식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알고 있던 지식조차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조병학 작가는 각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정밀하게 그린 후,
그 미래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공부를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한다.

'학교만 졸업하면 지겨운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평생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오늘날 지식이 증가하고 확산되는 속도는 과거에 비해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가속화 역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영국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효용 가치가 30년에 걸쳐 유지되었지만 2010년대에는 5년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2020년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남겨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해한 것은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골프 스윙을 생각해보세요. 스윙 하는 법을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스윙을 잘하려면 몸이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 스윙이 잘 됐다고 해도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자기만의 스윙을 완성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도 이해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많이 배운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없을까요?

과거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지식은 오류가 되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것은 오류를 낼 확률 또한 커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지식이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오늘날에는 하나만 잘못되어도 많은 곳에 오류를 일으키기 쉽죠. 더구나 나이가 들면 감각이

Profile 베스트셀러 <천재들의 공부법(2016)>, <2035 일의 미래로 가라(2017, 공저)>의 작가로 현재는 파이낸셜뉴스미디어그룹 계열사인 온라인 교육 기업 에프앤이노에듀의 부사장이다. 2017년까지 100,000명과 함께 책을 읽는 온라인 커뮤니티 <더굿북>의 대표 컨설턴트로 일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2035년, 과학기술 융합이 만드는 <일과 직업의 미래>', '천재들에게 배우는 <창조적 사고와 공부의 기술>', '천재들이 만든 <실패 없는 투자 비법>' 등을 주제로 다수의 대학과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다.

세계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토하는 사람들에 의해
혁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새로움은 볼 수 없지요.

퇴화해서 공부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 많은 지식을 새롭게 대체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워지죠. 이때 생기는 문제가 배웠던 과거 지식에 그냥 매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지식만 옳다고 고집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가 잘못되었다고 해석하죠. 이를 피하는 방법은 열린 자세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잘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공부'와 '노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이성으로 꽉 묶여져 있던 틀을 벗어납니다. 하늘을 날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멋진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지요. 놀이도 이와 같습니다. 학습은 모르는 것들을 알게도 해주지만 나를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다'는 행위는 우리를 그 세계의 밖으로 꺼내줍니다. '놀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지평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기며,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놀이가 우리에게 주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배움은 당연시하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생겨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현재에 대한 깊은 고찰과 '왜?'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계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토하는 사람들에 의해 혁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새로움은 볼 수 없지요. 또한 과거의 것만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억, 경험, 지식과 비교해 새로운 정보, 문제, 지식에서 차이를 발견했을 때 의혹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검토하며 지식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공부의 속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꿈을 항상 생각하고 그 꿈을 긍정하는 것, 열정을 갖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그 공부의 조각들을 합치고 융합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부는 미래의 꿈을 그려내는 일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당장 써먹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부한 것들은 곧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 모쪼록 꿈이 살아 움직이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활용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는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감춰진 보석을 꺼내도록 돕는 일

인재 개발 부서 담당자들의 만남

개인은 물론 회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우리는 끝없이 익히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움을 지원하고 이끌며 '실력'의 세아인을 양성하는 이들이 있다.
교육을 통해 세아의 내일을 키워가는 3명의 인재 개발 부서 담당자들.
그들을 만나 '배움의 가치'에 대해 들어본다.

세아인들의 배움을 위한 진심

세아홀딩스 인재경영팀 황혜정 대리

교육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저희 업무는 사람을 대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이 우리 회사에, 우리 세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의미있는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좋은 교육도 만들고, '배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룹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여러 계열사, 다양한 직급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현업 상황이나 주요 이슈들은 물론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각자의 고민과 상황, 목표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하는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저는 외부 세미나나 포럼에 참석하면서 인사/교육 업무와 관련된 타사 사례들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어요. 특히 저희 팀은 외부 자료나 기사 등 정보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라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그룹 교육 CEO 특강 시간에 대표이사 한 분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비슷한 정도의 경험을 가진 경쟁사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세아그룹 교육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

세아제강 인사팀 고은비 사원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물론 아직은 생산 설비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교육을 기획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사원이라서 주도적으로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HRD (인재 개발) 관련 공부만 주로 해왔는데, HRM (인재 관리)에 대한 지식과 역량도 쌓을 수 있도록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죠. 사내 온라인 교육 외에도 관련 교육 기관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제대로 발현시키고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죠. 더구나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스스로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새롭게 발견해내고 개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해요.
세아제강 분들이 더 멋지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현장과 현업 부서의 의견이 인사 제도나 교육 시스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배우는 자세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더 큰 시너지를 향한 교육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최리선 대리

인재개발팀 업무는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타 부서나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적절한 교육을 기획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니까요.
입사 초기에는 그런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현장 근무자 분들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만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확히 짚어내는 일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자주 교류하며 이야기를 들으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 담당자이면서도 정작 제 공부에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래밍 스터디도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한 공부 모임이지만 다른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고 있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배워야 해요. 남들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머물러있는 것은 퇴보와 다를 바 없잖아요. 무엇보다 스스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은 세아창원특수강의 인사, 교육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양사에 필요한 업무 역량을 잘 파악하고 전체 인사를 잘 아우르기 위해, 그래서 두 회사가 더 큰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 : 변화

몇 년 전까지 편리하게 사용했던 기기들이
어느 순간 골동품이 되는 세상.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화들이 매일 생겨나는 시대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배움과 개선을 통한 변화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지배 당할 것인가? 변화를 이끌 것인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종국에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자연생태계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생존 능력을 시험 받는 무한경쟁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경쟁의 척도는 당연히 변화에 대한 적응 여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나서야 변화를 눈치챈다. 순간순간 눈앞의 상황에만 연연하기 때문이다. 같은 환경 속에서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관성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관성의 흐름에 휩쓸리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네?'하고 감탄한다. 이렇게 뒤늦게 확인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한 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반대로 두려움 없이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자신의 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개선과 변화는 바로, 지금 당장

처음에는 적극적인 의지로 시작했지만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성장이 없음을 느낄 때,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작업이 어느덧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져 변화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편함이 없으며 할 일도 많고 바쁘니까

당장 변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더 이상 숨을 곳도, 방패막도 없는 상황이다.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사즉행 악사즉단(善事卽行 惡事卽斷)'이라는 말은 좋은 일은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하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역시 그때 바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다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공부로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쇄신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다.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장인이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변화 의지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지식과 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 성공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공부는 '더 잘함'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며, 탁월해지기 위한 훈련이다. 공부를 통해서 쌓인 지식은 오랜 경험과 어우러져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지식은 그제야 비로소 전문 지식이 되고, 평범한 직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인 또는 전문가로 변화한다.

실패에서도 성공을 배운다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의 CEO 제임스 다이슨은 먼지 봉투 없이 강력한 흡입력을 지닌 진공청소기를 개발하기까지 무려 5,126번이나 실패했다고 한다. 그는 거듭된 실패를 통해 차츰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고, 그 원인을 제거하며 마침내 성공을 이뤘다.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다. 그리고 그 학습 과정에는 실패도 포함된다. 넘어져 본 아이가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기어이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패를 성공의 전 단계인 베타 버전이라고 여기고 거침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더 이상 숨을 곳도,
방패막도 없는 상황이다.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나를 향해 끊임없는 변화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브 코비는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톱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다. 톱을 간다는 것은 편하게 안주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신을 빼내어 배움과 훈련을 위해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만이 불변의 진리인 세상에서 오직 끝없이 배우며 어제와 다른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배움과 개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여 자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삶으로 이어진다. 어떤 톱을 갈아서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공부를 찾아야 할 때다.

참고 서적 :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가, 한봉주 지음, 미래지식

임직원 스스로 만드는 교육 기부 문화

세아 철강공학교실

세아베스틸이 세아 철강공학교실을 열었다.
세아 철강공학교실은 철강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군산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철강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고,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능 기부 형식의 자율 공익 프로그램

세아베스틸이 군산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강공학교실을 운영한다. 철강공학교실은 초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철의 성질과 제조 공정을 알아보고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진행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세아 철강공학교실은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자율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이민구 과장은 이렇게 설명하며, ‘구성원들이 공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즐거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

6월 24일에 열린 1차 세아 철강공학교실에 군산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0명이 초대됐다. 이날 수업은 동영상을 통해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철의 속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우리 주변에 철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기술지원센터 황선욱 주임연구원의 질문에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냉장고, 냄비, 자동차' 등 다양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철이 없으면 냉장고를 만들 수 없어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망치와 못이 없어서 집도 못 지었을 거예요."

황선욱 주임연구원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후 아이들은 비누 만들기 실습을 통해 철의 녹고 굳는 성질을 알아보고, 밀가루 반죽으로 면을 뽑는 과정으로 철의 압연 공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고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철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어 좋았고, 실습도 재미있었어요. 전에는 딱딱한 물질이라고만 생각했던 철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날 수업에 참가한 5학년 문상준 학생은 이렇게 말하며 '다음 기회에도 또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수업 진행 전에는 긴장도 되고 많이 떨렸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줘서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초등반 교육을 함께 진행한 해외영업팀 최혜영 사원은 '군산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철과 과학에 많은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아베스틸은 군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비누와 국수 생면을 선물상자에 담아 전달했으며, 교육 수료 기념으로 수료증 및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했다.

창의성 중심의 고등반 교실도 열어

7월 18일에는 군산중앙고등학교, 군산제일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고등반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수업에는 R&D 연구센터 오병준 대리와 이상명 연구원이 교사로 나서 고등반 학생들의 학습을 도왔다. 고등반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세아베스틸 생산 현장을 견학하며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다. 특히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에 쇳물이 끓는 열이 더해져 실내 온도가 높아진 탓에 제강 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함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교실로 돌아온 학생들은 철이 보다 견고해지는 전위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업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모순점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구하는 TRIZ (Theory of Solving Inventive Program) 기법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엉뚱한 발상으로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지만 가상의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제가 앞에 놓이자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창의적으로 학습에 임했다.

매회 다른 학생을 초대하는 초등반 수업과 달리, 고등반 수업은 멘토링 관계 형성 및 심화 교육을 위해 동일한 대상에게 총 3회에 걸쳐 교육하는 연속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회차 교육에는 달걀을 높은 곳에서 던졌을 때 깨지지 않게 착륙시키는 '달걀 우주선의 원리 이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3회차 교육에는 달걀 우주선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실제 낙하 실험까지 해봄으로써 문제해결에 관한 아이들의 창의성과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군산 최초 기업 임직원 교육 기부

세아 철강공학교실은 군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업 임직원 교육 기부 활동이다. 관계 직원들은 이번 철강공학교실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자료 및 사례 분석을 시작했으며, 계획안 작성, 재능 기부자 선정, 교육안 작성 및 실습 프로그램 구성 등 총 6개월에 걸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타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 과정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등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이민구 과장은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재능 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세아철강공학교실은 올해 연말까지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며, 지역 학생들의 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에 관한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나갈 예정이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 2018 학술포럼

2018년 8월,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서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오페라, 낯선 사랑을 통역(通譯)하다'를 주제로 하여 공개 강연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오페라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오페라와 청중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페라 작품에 대한 미학적 접근

이번 학술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는 지난해 8월 『오페라 속의 음악미학 I』의 출판기념회 및 첫 번째 학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는 음악학(音樂學)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직 음악학자와 서울대학교 음악학 전공 석, 박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음악대학 음악미학연구회의 오페라 및 음악학 연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해 왔으며, 음악미학연구회는 이에 힘입어 주요 오페라 작품들을 미학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망라한 세아이운형음악총서를 꾸준히 출간해왔다.

학문과 예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각 제공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오페라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용숙 평론가를 비롯하여 독일 베를린 예술 대학의 강지영 박사, 독일 뮌스터대 음악학 우혜언 박사 및 서울대학교 음악학 박사 과정 학생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자들은 명작 오페라로 꼽히는 롯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외에도 쇼스타코비치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첸더의 <죠셉 추장>, 아힘 프라이어의 <수궁가>, 라모의 <이폴리트와 아리시> 등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작곡가의 작품까지 총 다섯 개의 오페라를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각각의 오페라 작품에 담겨있는 의미를 독특한 시각으로 보여줬다. 강연자들은 철학과 고전 문학, 심리학 등을 종횡무진하며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작품의 숨은 의미를 깊숙이 조명했다.

세아이운형음악총서는 현재까지 총 5권이 발간되었으며 곧 6권이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 대표인 오희숙 교수는 '이번 학술포럼과 총서 발간은 예술과 학문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발자취이자 오페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지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에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더해져 일터를 쾌적하게 변화시킨 성공 사례.
그 어떤 첩보 작전보다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던
부산파이프의 XO 카드 작전 이야기를
세아의 옛 사보에서 찾았습니다.

정리와 정돈으로 시작하는 변화

XO 카드 작전

성공은 일상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현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열정으로 써내려온 세아의 58년 기록.
그 가운데 적극적인 실천과 개선 의지로 변화를 가져온
XO 카드 작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리의 시작은 필요/불필요한 물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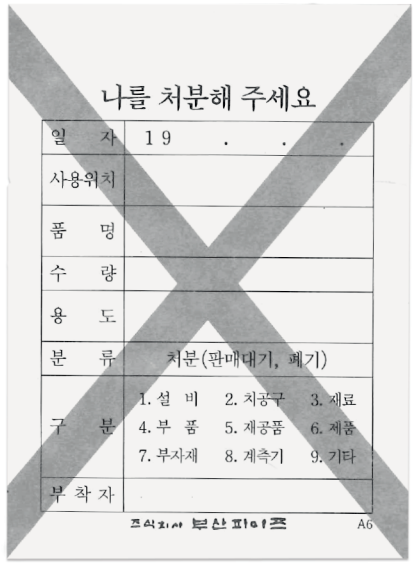
1990년 부산파이프 포항공장은 공정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활동의 일환으로 XO카드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XO카드는 공장 구석구석의 물품을 필요/불필요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에 부착하는 것으로, X카드는 폐기와 판매 대기로 나누어지고, O카드는 타 공정 활용 및 보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용 X카드가 부착된 물품은 쓰레기장이나 고철장으로, 판매 대기 X카드가 부착된 물품은 판매 대기 면책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불필요 판정이 곤란한 물품은 O카드를 붙여 보관 장소로 옮겨두되, 약 6개월간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시 X카드를 부착하여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전 수행 조직 구성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를 실시할 조직도 꾸려졌습니다. XO카드 작전 조직은 핵심 판정 요원, 판정 보조 요원, XO카드 기록 요원과 부착 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합리화팀이 진행 주관부서로서 작전을 주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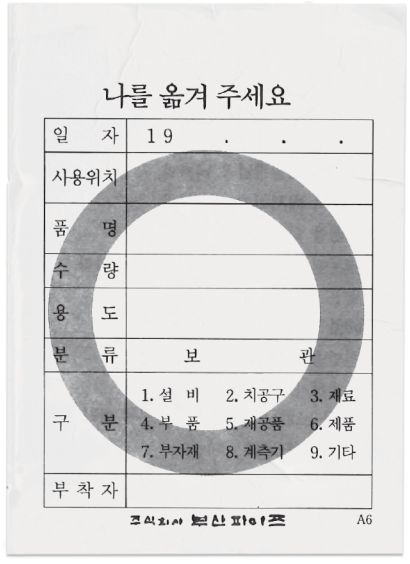
핵심 판정 요원은 보조 요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물품의 필요/불필요를 구분하고, 폐기/판매 대기/보관/이설을 판정하여 옮겨야 할 장소를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판정 보조 요원은 핵심 판정 요원을 돕는 한편 구석구석 숨겨진 물품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XO카드 기록 요원과 부착 요원은 2명이 한 조가 되어 활동했으며, 카드는 1개 물품에 대해 2장을 발부하여 1장은 물품에 부착하고, 나머지 1장은 회수하여 집계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나를 처분해 주세요

일 자	19 . . .
사용위치	
품 명	
수 량	
용 도	
분 류	처분(판매대기, 폐기)
구 분	1. 설 비 2. 치공구 3. 재료 4. 부 품 5. 재공품 6. 제품 7. 부자재 8. 계측기 9. 기타
부 착 자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A6

X카드 '나를 처분해 주세요' 라고 쓰여진 X카드는 판매 대기, 폐기 용도의 물품에 부착되었습니다. 물품의 종류는 설비, 치공구, 재료 등 9가지 품목으로 구분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작전 수행을 위해 카드 부착자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나를 옮겨 주세요

일 자	19 . . .
사용위치	
품 명	
수 량	
용 도	
분 류	보 관
구 분	1. 설 비 2. 치공구 3. 재료 4. 부 품 5. 재공품 6. 제품 7. 부자재 8. 계측기 9. 기타
부 착 자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A6

O카드 한눈에 카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알파벳 O를 카드 전면에 크게 표기하였으며, '나를 옮겨 주세요' 라는 문구도 함께 구성하여 해당 물품이 필요한 곳 또는 보관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항공장 전역으로 확대 전개

1월 17일 3공장 시범 실시로 시작된 XO카드 작전은 이후 1월 23일 2공장, 1월 25일 도금공장 및 A·B동 창고, 1월 30일 자재 창고, 2월 2일 1공장으로 확대 전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월 23일에는 전체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전체 작전 기간 중 X카드는 총 1,000여 장, O카드는 500여 장이 부착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부착 후 2주 후에는 핵심 판정 요원과 보조 판정 요원이 O카드가 붙은 물품만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물품을 부서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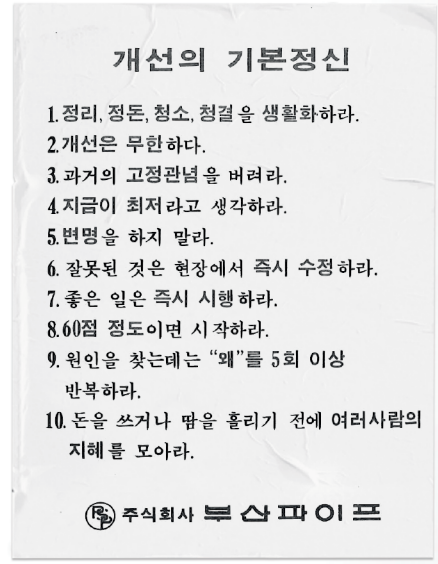
부산파이프 포항공장은 이와 같은 활동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물품이 작업 환경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포항 공장은 한결 쾌적하게 변모했고, 물품을 찾거나 청소하는 일이 수월해지는 등 작업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 전개

1964년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의 무결점(Zero Defect) 운동을 비롯하여 1978년 서울공장 1일 1건 물자 절약 운동, 1986년 설비 고장 예방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한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운동, 1991년 사무 EASY 운동, 2001년 FORCE 2030 등 XO 카드 작전 이전과 이후에도 일상의 개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세아의 노력은 줄곧 이어져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낭비와 불량, 사소한 고장과 불합리한 사항을 하나씩 고치고 바꾸는 일련의 활동들은 세아가 위기에 맞서 생존하고, 도약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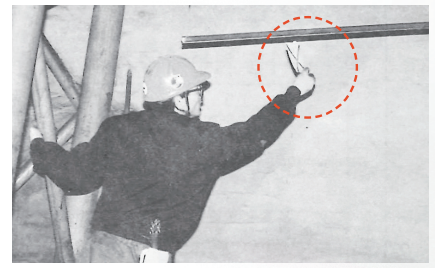
이 밖에도 세아 FS의 원이즘(Oneism) 문화, 세아 ESAB의 한길한 가족 문화, 세아베스틸의 e-Besteel 활동 등 다 함께 성장을 만들어 가고, 더 큰 도약을 꿈꾸는 세아의 개선 활동들도 이어졌습니다.


개선의 기본정신

1.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생활화하라.
2. 개선은 무한하다.
3.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4. 지금이 최저라고 생각하라.
5. 변명을 하지 말라.
6.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즉시 수정하라.
7. 좋은 일은 즉시 시행하라.
8. 60점 정도이면 시작하라.
9. 원인을 찾는데는 "왜"를 5회 이상 반복하라.
10. 돈을 쓰거나 땀을 흘리기 전에 여러사람의 지혜를 모아라.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개선의 기본 정신 1990년 3월 사보에는 XO카드 작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개선의 기본정신을 담은 10가지 행동 지침이 게재되었습니다. '60점 정도면 시작하라', '돈을 쓰거나 땀을 흘리기 전에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라' 등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작전 수행 중인 부산파이프 직원 제거해야 할 설비에 X카드를 부착하고 있는 요원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불필요한 물품을 찾아낸 판정 요원, 힘껏 팔을 뻗어 카드를 붙이고 있는 부착 요원 등 작전 성공을 위해 애쓴 당시 부산파이프 구성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Rialto Bridge in Venice, Italy

영속기업을 향해 내공을 쌓아갑니다

INOX TECH

글 : INOX TECH 남상욱 CSO (Chief Strategy Officer)

세아제강이 INOX TECH을 인수한지 4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세아의 가족이 된 INOX TECH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탈리아 Veneto 주에 위치한 Lendinara에서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왔다.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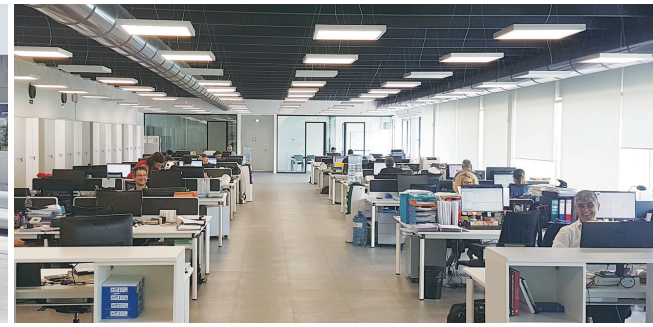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세아제강의 이탈리아 법인, SeAH Steel Europe의 법인장이자 INOX TECH에서 CSO (Chief Strategy Officer)로 주재 근무 중인 남상욱입니다. 세아의 일원이 된 이후, INOX TECH은 안정적인 모기업의 지원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황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INOX TECH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의 도시 베니스가 1시간 거리

INOX TECH이 위치한 Lendinara는 인구 만 명 정도의 소도시여서 이렇다 할 독특한 문화나 내세울 만한 지역 대표 음식이 없습니다. 2014년 4월, 주재 근무를 시작했을 당시에 INOX TECH 직원들과 Lendinara 시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5살 정도로 보이는 식당 사장님의 손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제 옆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아마 시골마을에서 처음 보는 한국인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이지만 Lendinara는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 등 큰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이 '유럽의 응접실'이라고 극찬했던 물의 도시, 베니스는 1시간 거리로 매우 가까운 편이지요.

베니스는 100여 개의 인공섬이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자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가면축제로 유명합니다. 또한 격년으로 진행되는 예술/건축 비엔날레(홀수 해에는 예술, 짝수 해에는 건축)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세아제강과 공동 마케팅으로 시너지 창출

INOX TECH은 세아제강과 함께 두 회사의 강점을 살린 공동 마케팅을 통해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OX TECH 제품과 동일한 특수강관 제품 외에도 세아제강의 강관까지 하나의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최근 어려운 상황의 INOX TECH을 위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INOX TECH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세아제강을 보며, INOX TECH이 진정한 세아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올해 9월에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과 함께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회 Gastech 2018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아제강과 INOX TECH은 짝수 해마다 독일 Dussledorf에서 개최되는 Tube Show와 18개월마다 개최 장소를 옮기는 Gastech에 참가해 공동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ube Show는 INOX TECH이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Gastech은 세아제강이 총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시너지를 얻고 있지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부터 충실히

2016년 36톤이었던 INOX TECH의 세아제강 제품 수입 및 판매 물량이 지난해 5,891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담 영업사원까지 지정하여 10,000톤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지요. Clad Pipe의 경우도 매출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Oil & Gas 산업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에너지 개발용 특수강관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INOX TECH은 현재 상황이 장기화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방면의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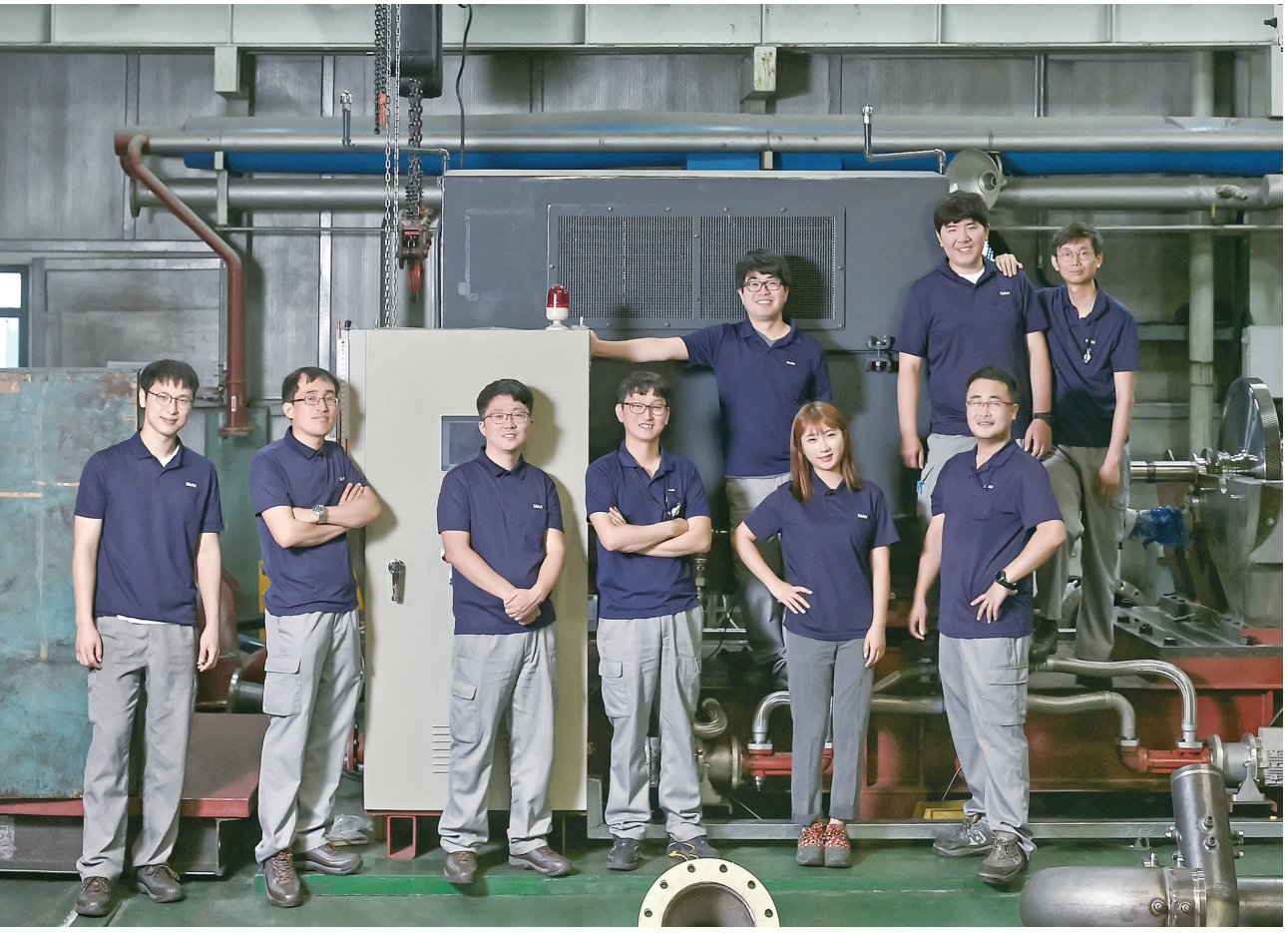
INOX TECH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자(Back to basic)'와 '함께 가자(Go together)'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막연한 기대를 갖거나 시황 탓을 할 게 아니라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의미입니다. 보다 나은 소통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무 직원이 하나의 사무실 공간(Open Space)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INOX TECH의 목표는 어떠한 시황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영속기업으로서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INOX TECH의 개선된 원가 산정 방식이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년 기한의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와 '원가 개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17년 9월 1일부터 세아제강 한용섭 부장과 김우호 과장이 INOX TECH에서 파견 근무 중입니다.

현장 5S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여 작업 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었고, 생산성 표준화 재정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증대를 위해 Project Management 기능 (납기 관리, 공정 진행, 서류 작업 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사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 전략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INOX TECH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교자채신(敎子採薪)의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다양한 도전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세아엔지니어링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 TF팀

익숙한 것에 새로운 것을 접목하며 또다시 새로움을 만들어간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취적인 생각으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간다. 이것이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을 수상한
9명의 세아인이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어낸 방식이다.

종전과 다른 방식의 압축기 개발

해야 할 숙제는 어렵고 많은데, 시간은 촉박할 때의 초조한 기분. 학창시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보지 않았을까? 9명의 TF팀 구성원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다.

지난해 고객사가 새로운 제품 및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개발1팀 이정원 과장, 김현수 과장, 오성남 대리, 김경목 대리와 이정민 사원, 개발3팀의 황동연 과장, 정주량 과장, 최봉상 과장, 이의상 대리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모였다.

주어진 시간은 5개월 남짓. 과제는 막중했고, 그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을 요구했다. 종전까지 모터 구동용 압축기를 설계, 개발해 온 이들은 가스 엔진을 이용하여 고온 고압의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새로운 장치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전기 자동차와 가스 차량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3팀 황동연 과장이 알기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다. 전혀 다른 구동 방식에 맞춰 제품을 설계하는 것은 한 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계에 오류가 생겨 제대로 조립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프로젝트 내내 마음 졸이며 잠을 못 잤어요. 그때는 전화 벨 소리만 울려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이정민 사원은 당시의 고충을 이렇게 회고한다.

TPM 시스템에 대한 독자 기술 확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말은 진리인 듯하다. 팀원들은 제한된 납기 일정 안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올해 초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세아엔지니어링의 모든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이정원 과장이 수상 소감을 통해 '불철주야 함께 고생한 세아엔지니어링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개발을 요청한 고객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이번 개발을 통해 세아엔지니어링은 가스 터빈 발전 효율을 3~7% 증대시키는 TPM 시스템에 대한 독자 기술도 확보하게 됐다. 압축기를 종전과 다른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커다란 수확 중 하나다.

최초의 시도, 새로운 도전도 엄지 척

프로젝트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아엔지니어링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TPM 패키징에 들어가는 증속 기어 박스 개발도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전에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가져다 사용해오던 것을 직접 만들어 납품했다는 것.

“제작 경험이 없는 세아엔지니어링의 증속 기어 박스에 대해 고객사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품으로 시운전을 한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자 곧바로 엄지를 치켜세우더군요.”

김현수 과장이 그때의 벅찬 감동을 전한다.

엔진의 배기열을 발전 시스템에 활용하는 폐열 회수기도 만들었다. 가스 엔진으로 공기를 압축할 때 발생하는 열을 모아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전기 모터 구동 압축기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난생 처음 외국인 친구도 사귀게 됐어요.”

김경목 대리는 미국 엔지니어와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다며,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뜻밖의 기쁨을 전한다.

평소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출하식의 감동

제품 검수를 하루 앞두고 핵심 부품이 준비되지 않아 눈앞이 캄캄했던 때도 있었다. 잦은 설계 변경과 제작 오류로 현장 설치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주말 휴일을 반납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서일까? 이번 TPM 패키징 제작을 완료했을 때의 감회는 특별했다.

“집채만한 크기의 인클로저 (Encloser)로 장비를 덮는 일이 완료되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여럿이 다 함께 달려들어 고정 볼트를 조이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주량 과장이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TPM 패키징 프로젝트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며 출하식 자리도 마련했다. 현수막을 걸고 모든 직원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평소에는 개발 완료 후 ‘박수 한 번 치고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던 이들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만큼 값진 성과였다.

새로움은 곧 즐거움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고효율 제품 및 특수 목적용 압축기 개발, 그리고 세아엔지니어링만의 특성이 잘 묻어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성남 대리가 이렇게 답한다. 최봉상 과장도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압축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다. ‘새로운 제품을 설계, 개발하는 일은 언제나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는 김현수 과장. 이들 모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한다.

“기존 공기 압축기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세아엔지니어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전사가 합심하여 신모델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왔듯 향후 신규 개발 프로젝트 역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벌써 3번째 세아업적상을 수상한다는 이정원 과장. 그의 당찬 포부처럼 새로움을 향한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차곡차곡 쌓은 17년 내공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생산팀 황영기 계장

열처리 설비가 고온의 열기를 내뿜는다.
닦아내도 금세 다시 이마에 구슬땀이 맺힌다.
영남권 일대에 폭염 경보까지 발효됐던 날.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열중하는 세아인,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생산팀의
황영기 계장을 만나고 왔다.

청년의 외모, 장년의 연륜

훤칠한 키, 실제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얼굴.
외양만 말하자면 그는 20대 청년 못지않게 젊어 보인다.
척척 앞서 나가는 걸음걸이에도 패기가 넘친다.
'현장의 장인'이라고 불리기엔 너무 이르다며 손사래를 치는 황영기 계장.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열처리 공정에서 잔뼈가 굵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올해 나이 마흔일곱. 황영기 계장은 2000년에 입사하여
세아특수강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철강업 자체가 무척 낯설고,
3교대 근무도 적응이 잘 안됐어요.
하지만 친구의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3년만 깊게 파보면
자신의 일에 확신이 서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마음을 다잡았죠."
황 계장이 입사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가 '내가 하는 일에 프로가 되자'고
결심한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열처리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가

외모는 세월을 비켜갔어도
연륜은 내공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는 법.
입사 이후 줄곧 생산팀 열처리 공정에서
근무해온 그는 이제 열처리 공장을
내 집 안방처럼 구석구석 훤히 꿰고 있다.
얼마 전에는 1988년에 입사한
선배가 정년 퇴임하면서
공정 전반의 관리를 책임지는 바통을 넘겨받았다.
2015년 계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중국 해외법인
공장 두 곳에 열처리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톈진과 난퉁 공장의 조속한 생산 안정화를 위해
파견 근무에 나서게 된 것.
낯선 문화 속에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기술을 전수하는 일이
마냥 녹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황 계장이 두 달 반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중국 현지 직원들이 그에게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다.

지난해 세아특수강 태국 공장이 완공된 후에도
황 계장은 열처리 설비 시운전과
현지 트레이닝을 위해 태국에 다녀왔다.
오로지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17년의 세월.
그 세월은 철강업을 생소해하던 청년을
열처리 공정의 기술 전수자이자
전문가로 변화시켰다.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
원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던 그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공정 업무가 여럿이 어울리며 의견을 나눠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격도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잦은 실수에 위축되는 일도 많았지만
선배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차츰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황영기 계장.
이제는 그가 선배들에게 받았던 조언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입장이 되었다.

**설비 앞으로 가서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왜 불량이나 고장이 발생했는지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죠.**

숙련된 기술 뒤에 숨은 노력

열처리로는 한 번에 수십 톤 용량의 자재를
처리하는 공정이므로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잠깐의 방심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연성 가스를 다루는 만큼 안전을 위해
설비 보전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설비팀과 함께 직접 설비를 분해해서 정비한다.
신규 설비를 증설할 때에도 부품 하나하나
이해하려 애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
황 계장은 설비 결함의 요인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30년 넘은 노후화된 설비의 경우 모니터 화면만으로는
고장의 원인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설비 앞으로 가서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왜 불량이나 고장이 발생했는지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가족'

열처리로가 바쁘게 가동 중이라는 것은
황 계장에게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열처리로가
멈추거나 식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열처리로가 가동과 중지를 반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모두 합심하여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요."
황 계장은 당시의 고충을 회상하며
'몸은 힘들지라도 열처리로가 바쁘게 움직여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오랜 근무의 비결을 묻자 '최고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경영진,
좋은 가르침을 전해준 선배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늦은 나이에 얻은 9살 딸아이와 7살 아들,
남편을 최고라 생각하고 따라주는
'사랑하는 집사람' 덕분에 힘들어도 힘이 난다고 한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지요.
확고한 시스템 구축으로 열처리 불량을 제로화하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해외 법인 공장에 전수할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계획과 포부를 말하는 황영기 계장의 눈빛에
청년 같은 순수한 열정과 장년의 진지함이 묻어난다.

가슴속까지 파랗게 물들이는 여름

경북 포항

삶에 푸르고 대찬 기운이 필요할 때,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그리울 때는
포항의 바다로 가자.
세아의 여러 가족들을 품고 있는 포항에는
유독 자연의 에너지가 힘차게 일렁인다.
하늘, 바다, 바람, 파도...
이 모든 자연의 요소들이 살갗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는 곳, 포항으로 떠나본다.

호미곶의 랜드마크, 상생의 손

푸른 희망과 긍정의 기운이 솟구치는 곳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살아서 좋은 점은 다양한 인상의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최동단, 포항의 바다에 가면 유독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일렁이는 느낌을 받는다. 포항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일 수도, 바람이 유독 장쾌하게 불기 때문일 수도, 이곳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 '철강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모든 요소들의 합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포항하면 철강산업을 먼저 떠올린다. 여행지로서 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순영 문화관광해설사도 이 점을 안타까워한다. "포항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하면 사람들은 어떤 곳인지 잘 알죠. 하지만 포항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포항은 살기 좋고, 가볼 만한 곳도 많아요."

한반도 동쪽 끝, 깊숙한 동해바다

포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바다'를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 성장하고 있다. 그중 포항시가 새롭게 조성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있다. 도구해수욕장에서 호미곶까지 해안선을 따라 25km 길이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돼있는데, 이중 추천 구간은 해안 데크길이 잘 깔려있고 볼 거리도 다채로운 2코스 선바우길(6km)이다. 바다 위로 걸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데크길에 오른다. 그런데 바다 풍경만큼이나 기암괴석들의 놀라운 형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위에 오묘한 빛깔의 돌들이 촘촘히 박혀있는데, 마치 어느 예술가가 일부러 이렇게 빚어놓은 듯 장관이다. 또한 흥환 간이해수욕장에 이르면 바닷물이 몽돌 사이를 오가며 차르르 소리를 내고, 전망대에 오르면 끝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덥다 싶으면 데크길 밑으로 내려가 바닷물에 첨벙 발을 담그며 더위를 날려버리자. 수심이 무릎 밑으로 오기 때문에 아이와 물장구치며 놀기에도 좋다.

한반도의 최동단, 포항 호미곶

이어서 포항의 상징적인 명소, 호미곶으로 향한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백두산 호랑이가 연해주를 할퀴는 형상으로 묘사돼왔는데, 지도상으로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 호미곶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이곳에서 매년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이때 모이는 인파가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호미곶의 랜드마크는 바다 한가운데에 치솟은 '상생의 손'이다. 언제 봐도 강렬한 인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품은 바다 위로 솟은 오른손뿐 아니라 광장에 세워진 왼손을 함께 감상해야 제맛이다. 배타적인 '한 손의 시대'를 청산하고 함께 사는 '두 손의 정신'을 형상화했다는 의미를 곱씹으며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갈 지혜를 구해본다.

동해의 생명이 모여드는 죽도시장

포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죽도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동해안 최대 규모의 시장인 만큼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 먼저 수산물위판장과 회센터 골목을 공략하자. 특히 요즘처럼 더운 계절에는 물회가 인기다. 광어, 우럭, 오징어회를 채소와 함께 육수에 섞어 후루룩 마시듯 먹으면 더위에 지쳐있던 몸이 다시금 가뿐해진다.

이 밖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선상 위를 누비는 포항 운하, 일제 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돼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낚시족이라면 어종이 풍부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도 가볼 만 하다.

사실 떠날 곳을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떠나있는 그 시간 동안 수고한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떠날 수 있어 좋은 여름, 일상 밖의 공간에서 달아오른 몸과 마음을 식히며 꿀맛 같은 시간을 만끽해 보자.

SeAH in POHANG

세아제강 포항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36
054-271-4114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054-285-4771

세아 L&S 본사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로 348(호동)
054-278-8701

세아엔지니어링 포항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48(호동)
054-727-2300

가족의 발견(犬)

유기견 산책 봉사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가족

지난해 길가에 버려진 유기견은 약 10만 마리.
유기견 2마리 중 1마리(유기동물 45%)는 자연사 혹은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에도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은 현실.
이러한 가운데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가 남편 정준호 씨와 함께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다.

갖가지 사연의 버려진 아이들

이유진 대리 부부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평강공주 보호소. '**평**화로운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공**동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이곳에는 총 450여 마리의 유기견, 유기묘들이 살고 있다. 가수 이효리가 순심이를 입양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유기 동물 대부분은 학대 당하고 버려지거나, 늙고 병들자 치료비 때문에 주인이 포기해 버린 아이들이다.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아이, 다른 사설 보호소가 문을 닫으며 살 곳을 잃은 아이, 견주가 암에 걸려 돌볼 수 없게 되면서 이곳에 맡겨진 아이도 있다.

"우연히 이태원에서 유기견 봉사 단체 회원들이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모습을 본 후, 단순히 애견에 대한 관심을 넘어 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아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생각만 하던 유기견 봉사를 드디어 실천할 수 있게 됐네요."

준호 씨가 봉사 활동에 앞서 설레는 마음을 전한다. '신랑과 함께 사보에 출연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이유진 대리도 사보 담당자가 유기견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 더 많은 세아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용기를 냈다.

햇살 속 강아지들과 함께한 소풍

평강공주 보호소는 자매 둘이서 운영하는 사설 보호시설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수많은 유기견들을 산책시킬 수 없어 자연히 유기견들은 견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처지. 자매 운영자는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되지 않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산책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유기견들이 마냥 안쓰러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소풍'이다. 소풍은 봉사자와 유기견이 함께 산책하며, 유기견들의 활동성을 높이고 봉사 참여자들 역시 강아지들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지난 5월부터 세아홀딩스도 나눔세아의 일환으로 유기견 봉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소풍'에 동참했다.

이날 이유진 대리 부부와 '소풍'을 함께하게 된 파트너는 믹스견 '체리'와 검정 푸들 '탄이'. 두 아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부부와 금세 친해진다.

건장한 체구의 준호 씨는 군대 시절에 조교로 근무했다고 한다. 대학 때는 극진 가라데를 배웠고, 결혼 전까지도 복싱 마니아였다. 그런 그가 세심하고 다정한 손길로 탄이를 쓰다듬는다. 서로 맞추기라도 한 듯, 위아래 검은 옷을 입은 준호 씨와 탄이가 사뭇 잘 어울린다.

무더위 탓에 7~8월에는 산책 봉사를 멈췄다가 9월에나 재개한다고 하니, 이날 산책을 마치면 이곳 유기견들은 다시

날이 선선해져야 견사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사정을 모른 채 강아지들은 모처럼의 소풍에 신명이 났다. 눈을 마주치며 꼬리로 살랑살랑 기쁨을 표현하고, 벌렁 눕거나 깡충거리며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서로 배려하며 닮아가는 부부

"신랑은 항상 저를 가장 아끼고 배려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본인도 하루 종일 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다리가 잘 붓는 저를 위해 매일 발 마사지도 해주죠."

이유진 대리의 이야기에서 다정다감한 준호 씨의 성격이 드러난다.

준호 씨도 아내를 '똑 부러지면서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해외 출장이 잦은 그가 새벽 비행기로 집에 돌아올 때면, 아침잠이 많으면서도 일찍 일어나 반겨주는 아내의 모습에 행복을 느낀다고.

"결혼하니까 또 다른 연애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더 진솔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의 '연애'가 더 재미있고 즐거워요."

4년 넘게 친구로 지내다가 지난해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 부부는 연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

이 세상 가장 다정한 호칭은 이름

그 어떤 달콤한 애칭보다 다정한 호칭은 바로 이름이 아닐까? 준호 씨는 아내를 '유진아~'라고 이름으로 부른다. 상대방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긴다.

평강공주 보호소의 유기 동물들에게도 이름이 있다. 까만색이니까 짜장, 흰색 털을 가진 우유, 코카 스파니엘 견종의 코카 등, 400여 마리나 되다 보니 외우기 쉽게 대부분 생김새에 따라 직관적으로 붙여진 이름들이다. 앓고 있는 병명, 버려진 사연을 담은 가슴 아픈 이름도 있다.

누군가의 반려견이었던 시절에는 모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아이들. 이 아이들이 버려질 때 그 이름도 같이 버려졌다. 분명 이름을 불러주던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버려진 아이들은 익숙했던 이름 대신 이곳에서 새 이름을 얻었다.

같은 추억으로 더 소중해지는 가족

"처음에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체험을 하고 보니 봉사를 했다는 느낌보다 강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아이들의 더러워진 집을 청소해주고 싶다며 봉사 활동을 마친 후, 준호 씨가 이날의 소감을 전한다.

부부는 올해, 이유진 대리가 대학시절을 보낸 영국에 다녀올 예정이다. 한 사람의 추억이 있던 곳에서,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두 사람의 추억을 더하고 싶어서다.

비단 부부의 인연이나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추억을 만들며 점점 더 소중해지는 존재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른다.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 우리 모두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길, 평강공주 보호소의 유기견들도 하루빨리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되길 바래본다.

안성 평강공주 보호소

9월부터 세아그룹 공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성평강공주보호소 봉사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후원 및 봉사 참여 문의 :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yujin.lee@seah.co.kr

활기찬 여름을 위한 전신 운동

서킷 트레이닝

더위에 싸우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여름.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통해
전신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전반전 경기를 마치고,
새로운 후반전을 준비하는 세아인들을 위해
세아 피트니스 센터 이흥표 매니저가
전신 운동에 효과적인 서킷 트레이닝을 제안합니다.

이흥표 매니저는 운동처방 1급,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2급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로 전국체전 복싱 종목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1997년 춘계전국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60kg급 3위, 2000년 YMCA 보디빌딩대회 -65kg급 2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세아인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서킷 트레이닝이란?

여러 종류의 강도 있는 운동 동작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몸속 불필요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워주는 전신 운동입니다. 근력과 기초 체력을 높여 살이 쉽게 붙는 복부나 허벅지, 팔뚝 부분이 신경 쓰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동작이지요. 3일 연속으로 서킷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하루는 휴식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 기초 체력을 높이고 싶은 분
- ☑ 몸 여기저기 군살이 쉽게 붙는 분
- ☑ 별도의 도구 없이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고 싶은 분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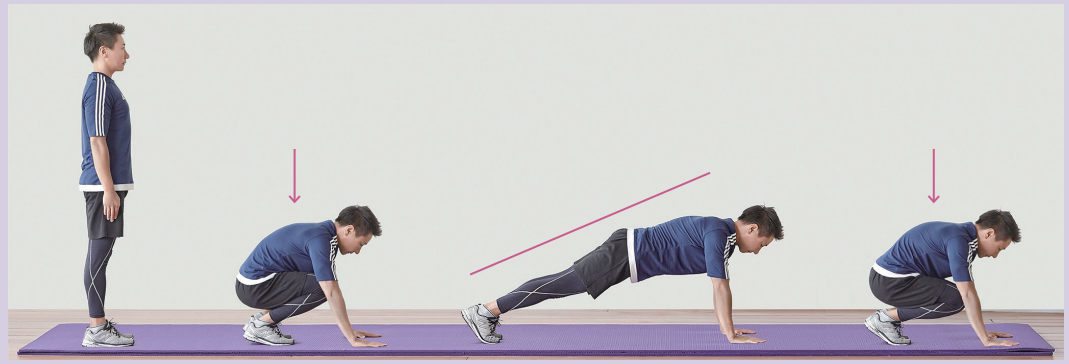
JUMPING JACK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까지 일석이조 점핑 잭

① 차려 자세로 양발을 모읍니다.
② 점프를 하면서 팔과 다리를 벌려줍니다.
③ 원래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MOUNTAIN CLIMBER 다리와 복부의 근력을 키우는 마운틴 클라이머

① 팔굽혀펴기 자세로 엎드려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줍니다.
② 오른발을 들어 가슴 쪽으로 무릎을 끌어당깁니다.
③ 시작 자세로 돌아가서 왼쪽 다리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전체 동작을 2-3번 빠르게 반복합니다.

BURPEE TEST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버피 테스트



① 허리를 곧게 펴고 섭니다.
② 상체를 숙이고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③ 복부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를 점프하듯 뒤로 쭉 뻗어 어깨와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④ 다시 한 번에 다리를 앞으로 점프한 뒤,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세아 뉴스

세아제강

세아제강 군산공장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세아제강 군산공장이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연 3건 이상,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높은 납세 의식으로 모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다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래피티 프로젝트에서 군산 공장이 첫 번째로 선정됐다. 지난 6월 11일,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카메아 하다르(Kamea Hadar)가 군산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일주일에 걸쳐 대형단조 공장 외벽에 '미래 세대를 위한 인식 변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완성했다. 벽화 덕분에 공장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으며, 일하는 공간에 대한 임직원의 애정과 만족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창원특수강

2018 하반기 전략회의 시행

7월 6일,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강당에서 2018년 하반기 전략회의가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활동 내용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지용 대표 외 직책 보임자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서 각 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지용 대표는 '하반기 우리의 선택에 힘을 모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세아씨엠

창립 1주년 기념식 실시

7월 2일, 세아씨엠이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 세아타워에서는 이휘령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동규 대표의 창립 기념사가 있었다. 김동규 대표는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제품 판매 확대, 1등 경쟁력 확보, 부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제 구축, 무사고 생활화가 현재 세아씨엠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였다.

세아 M&S

2018년 하반기 전략회의 실시

7월 25일, 세아 M&S 여수공장에서 2018년 사업년도 사업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팀별 상반기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와 반성, 하반기 목표 달성 전략이 발표됐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강평을 통해서 앞으로의 몇 년이 회사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직원 모두가 한식구가 되어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아 L&S

하반기 목표 달성 결의대회 실시

세아 L&S 철강영업본부는 하반기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세아 L&S는 행사를 통해 상반기 성과를 격려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며 하반기 목표 달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치열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철강영업본부의 화합 및 소통을 도모하였다.

사우동정

세아홀딩스

출산
이은영 경영지원팀
고광범 미래전략팀

세아제강

입사
송향민 STS내수팀
이윤진 서울영업1팀

출산
정희태 창원공장 생산팀
김준영 포항공장 생산3팀

조의
조 현 인사팀(모친)
한만수 생산2팀(빙모)

세아베스틸

조의
안수현 소형압연팀(부친)
김승규 품질보증2팀(부친)
황정식 소형압연팀(모친)
김동윤 고객기술지원센터(빙부)

세아창원특수강

출산
이세형 영업4팀
박영길 대형압연팀
김상섭 품질보증팀
정용현 2제강팀
박영민 제강설비팀
박현상 3제강팀

조의
송태용 소형압연팀(본인)
안재영 공정연구2그룹(모친)
정창조 생산관리팀(모친)
노용섭 인재운영팀(빙모)
이정삼 수입검사팀(빙모)
김영기 산세파트(빙모)

세아특수강

조의
정용법 품질보증팀(빙모)

세아씨엠

입사
김세운 생산팀 1CCL
전민재 생산팀 1CCL
정종선 생산팀 2CCL

세아 FS

조의
이기웅 경영지원총괄(빙모)

세아 ESAB

출산
김지건 생산팀

세아메탈

입사
김민규 창원 생산설비팀
김동환 창원 생산설비팀

세아 M&S

입사
이슬비 영업2팀

세아 L&S

입사
이용근 인천영업소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하지윤 구매팀
강기수 개발3팀
조준혁 개발3팀
박하경 영업팀
조강오 토목건축팀
조윤경 토목건축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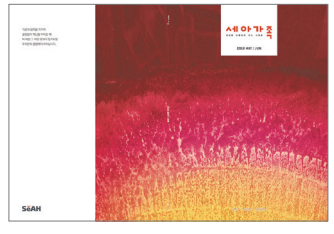
결혼
이광열 구매팀

독자엽서

멜킨스포츠 노라인 프리미엄 줄넘기
(핑크, 스카이 블루 색상 중 랜덤 발송)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다음 호 독자 의견에 선정되신 분께는 줄 없이 편리하게 유산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노라인 줄넘기를 선물해 드립니다.

* 독자엽서 내용은 우편뿐만 아니라 yujin.lee@seah.co.kr (이유진 대리)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끓어오르는 붉은 쇳물의 용솟음이 7월의 찜통더위를 표현한 것 같네요. 너무 더워서 밖에서 운동을 통하지 못하는데 헬스케어 코너에서 소개해주는 다양한 동작들을 편하게 따라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창흥로 박봉화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를 준비했던 일원으로 사보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니 뿌듯하기도 하고, 행사 당시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볼 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세아타워에 근무하면서 궁금해하던 공장 소식을 사보를 통해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조성재

세아에 입사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 부단히 새로운 삶을 개척해온 '철의 장인'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울림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세아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최병우

세아인의 화합과 단결의 모습, 그날의 에너지를 지면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세아베스틸 래들의 모습이 멋있게 담긴 표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에서 도예공방 체험을 해보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이주현

<세아가족> 사보기자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황미라 세아제강 부산영업1팀(부산)
이정준 세아베스틸 기획팀(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고소영 세아 FS 인사기획팀(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정재원 세아 ESAB 경영전략팀(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부산)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대전)
이상기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포항)
박솔향 세아네트웍스 인사팀(서울)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 02-6970-0093